

# “대통령 공약, 광주 車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차질 없어야”



## 김동철 신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한 상임위원장으로, 특히 지역경제가 취약한 광주·전남 입장에서 막중한 역할이 기대된다. 이에 광주일보는 신임 김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소감은.  
▲광주·전남 시·도민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덕분에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책임 또한 매우 큰 자리다. 특히 광주·전남 유일한 상임위원장이자 보니 어깨가 두 배로 무겁다. 시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원래 법사위원장을 1차로 했는데 산업위원장이 됐다. 그 과정과 배경을 설명해 달라. 불만은 없다.

▲법사위는 국회 내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으로 일명 상원으로 통하는 곳이다. 모든 부처의 장관들을 만날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를 직접 추진할 수 있어 지원했는데 아쉬움이 크다. 2순위로 산업위를 지원한 목적은 낙후된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장 문제로 당 지도부와 ‘밀당(밀고 당기기)’도 하고 온갖 로비하는 것이 눈에 보였으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산업위원장에, 또 어떤 날은 법사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산업위원장에 내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 3선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선당후사’를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다.

-산업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우리 위원회는 산업부·중소기업청·특허청 3개 정부 기관과 한전·석유공사 등 12개 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산업단지공단 등 19개 준정부기관과 한국표준협회 등 21개 기타공공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어 매우 광범위하게 현안들이 있다.

우선,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이뤄야 하며, 서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육성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액수급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한다.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한중 FTA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국내산업의 이익과 농축산업계의 피해대책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산업위원회에서 해야 할 광주의 현안은 뭐가 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 광주·전남 유일 위원장 책임 무거워

## 중소기업·골목상권 육성 힘쓸 것

## 광산을 보선 신진인사 충원 場 돼야

## 광주 국회의원·시장 협력·소통 필요

수 있는데도, 국내 투자는 정체돼 있고 해외의 생산라인을 늘리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사업비가 8300억원에 이르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내년 상반기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작년에 완공된 하이테크 금형센터를 중심으로 광주가 금형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비구축을 앞당겨야 한다. 광(光)산업도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 좋은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결과적으로 광주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당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원장을 1년씩 하라는 식으로

어기하는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 2년은 보장돼야 한다. 위원장을 1년씩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 다만, 개인적으로 내년 봄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각오인데 이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차순위자가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도 있다고 본다.

-운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와 지지선언한 5명 국회의원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광주 국회의원들과 시장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광주 공동체를 함께 책임져야 할 주체다. 목표는 같으나 역할만 다를 뿐이다.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관계설정이 필요하겠는가. 다만, 과거에 양자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이런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는 광주발전이라는 원칙 속에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본연의 관계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광주 광산율이 재보선 지역이 됐다. 광산구의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당 후보는 어떤 후보여야 하고 후보선출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은가.

▲전국단위의 총선에서는 현역의원 지역구에서 새로운 인물 중심의 인위적 세대교체가 지극히 어렵다. 그러나 재보궐선거는 중앙당이 마음만 먹으면 제한된 지역에서 신진인사 충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번 광산을 재보궐 선거는 그런 무대가 돼야 한다. 젊은 세대를 앞장세워 공천 과정에서부터 감동을 이끌어내고 당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형화 광산율에는 각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 온 양질의 젊은 후보들이 다수 나왔기에 그런 기대가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중진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광주에서까지 ‘중진 역할론’이 필요하기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제 중진들은 당의 어른으로서, 정권교체의 좌표를 제시하고 방향타가 되는 더 크고 중요한 역할에 매진해 주는 것이 당과 국민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굳이 중진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당세가 약하고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후배 정치인들에게는 보다 큰 귀감이 될 것이다.

후보선출 방법은 여러 단계에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은 거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 인지도 경선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실력·당기여도·소명의식 등까지 파악해 공천할 수 있는 면밀한 공천방식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직속기구 4실로 늘려 1인 결정구도 탈피 산하기관 임원 후보자 시민패널이 검증

## 광주시 민선 6기 조직·인사 개편안

## 인권·시민·일자리 분야 보장 청년인재육성과 등 2개과 늘어

민선 6기 윤장현(號)가 직속기구를 대폭 보강해 전진배치하는 방식으로 ‘다자결정 구도’방식을 구축하기로 했다. 민선 시대 한계로 지적돼 온 시장 1인 결정구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과도한 직속기구는 자칫 기존 조직과의 불협화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임 후 정밀한 조직진단을 거쳐 오는 12월 제2차 조직개편 시 반영한다는 보완책도 내놓았다.

송인성 희망광주 준비위원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인사 개편안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시장 직속기구의 보강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일단 한번 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대신 보완책으로 취임 후 곧바로 외부기관에 시 분청은 물론 산하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맡겨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새로운 조직개편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인사에 대해서는 “취임과 동시에 7월 내에 할지, 아니면 조직개편안의 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이 마무리되는 8월 초에 함께할지는 좀 더 검토해 시정조직 안정에 보탬이 되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송 위원장이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크게 시장 직속 기능 강화와 인권·시민·일자리 분야 보강으로 나뉜다.

우선 시장 직속으로 기존 대변인실 1실에서 인권평화협력관실·참여혁신단실·사회통합추진단실을 추가해 총 4실을 두기로 하고, 이들 자리는 내·외부 발탁이 모두 가능한 개방형으로 했다. 직급은 4급이지만, 국장 승진 전 단계인 준국장급이다. 이 중 대변인은 윤 당선자의 의중에 따라 시정 내부에서 발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게 송 위원장의 말이다.

인권평화협력관실은 기존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있던 인권담당관실과 국제협력담당 기능이 통합돼 국내 인권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인권 문제까지 담당하게 된다. 참여혁신단은 안전행정국 아래 있던 시민협력관실의 기능을 격상시켰으며, 신

설된 사회통합추진단은 버스 파업 등 노정 담당부서 지역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됐다. 경제부시장 직속으로는 정부 요청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두기로 했다.

시정 내 각국의 명칭 등도 당선자 공약에 맞춰 일부 손질됐다. 안전행정국과 투자교육국, 도시디자인국은 자치행정국과 일자리창출투자정책국, 도시재생국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행정국의 자치·소통과 안전기능을 각각 분리해 ▲자치기능은 자치행정국으로 개편하고 ▲소통기능은 신설되는 참여혁신단으로 이관하며 ▲안전기능을 재난기능과 일원화해 소방안전본부 산하에 준국장급인 안전총괄정책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창출투자정책국 밑에 준국장급인 일자리창출정책관을 두고, 자치행정국 아래 총무과 명칭은 일본식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라 행정지원과로 바꿨다. 이와 함께 청년인재육성과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 조직은 기존 2실 8국 1본부 52과 체제에서 2개과가 늘어났다. 광주시는 인승위가 마련한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초 조직개편이 단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선 6기 인사 기준으로 5대 원칙 10대 방향이 발표됐다.

최우선 기준으로 참여와 소통의 인사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객관적인 보직·경력관리 등 모든 직원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인사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내부 검증 시스템 도입, 인사고충 핫라인 개설, 셀프 경력관리, 동료 추천제, 민원인 칭찬·추천제, 주요 보직 직위공모제, 격투·기피·현명부서 인사우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앙-시-자치구간 인사교류 확대 등을 통한 조직활성화, 인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단계적 추진, 산하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초한 인사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하기관 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문 시민패널 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과정에서 정실인사나 승진 관련 잡음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히 배제하는 등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http://www.joytour.kr 2억 영장보증보험 가입업체 여행의 즐거움 동반자!!!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062) 234-3222 FAX (062) 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7가 151-1번지 (영광영수출 빌딩 2층)

**꽃보다 누나 따라 잡기 서유럽 / 터키일주 / 발칸반도 / 스페인 / 포르투갈**

터키 일주 9일	2,590,000~
서유럽 5개국 10일	3,290,000~
이스탄불, 스페인, 포르투갈 9일	2,890,000~
이스탄불, 발칸 9일	3,190,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W420,000/4월기준), 기사/가이드료(90유로), 성급차지

**7/27~8/7 매주 목, 일 4회 운행!!**

무안 → 마카오 & 홍콩 전세기!!	홍콩/마카오 4일&5일 949,000~
	홍콩/마카오/심천 4일&5일 999,000~

**여름휴가철 카메라로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선착순 20명!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펜션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히타 특급 전통료칸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카메라 359,000	카메라 499,000

출발일 : 7/12/26/7/28/7/30/8/2/8/13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포함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포함

대마도 힐링투어 2일 (부산, 출→도착) 239,000~  
북해도 품격 초특가 (단1회 7/21) (광주, 출→도착) 1,029,000

**일본 규슈 구중산 유후다케 등산 3일 199,000~**  
출발일 : 7/12/26/7/28/7/30/8/2/8/13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포함, 선제식(53식)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포함

**[all포함] 일본 10대 명산 구중산 트레킹 4일 540,000**  
출발일 : 7/12 ※광주 출/도착, 전통료칸 + 후쿠오카 시내 특급호텔 (여름휴가철)

**일본고급 료칸 및 특급호텔 숙박!! 규슈 3박4일 7/26/7/28/7/30 출발 확정 569,000~**

**특급호텔 숙박!! 오사카, 교토, 나라 3박4일 799,000~**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포함  
**국내 여행 목표-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포함  
**홍도·홍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포함  
**남이섬/속초는 자라, 무술곰/곰령/방랑야구터 2일 200,000**

**무안에서 출발하는 민족의 명산 백두산 여행!!**

실속	연길, 백두산(북파), 용정, 도문 4일	999,000~
품격	연길, 백두산(북파), 용정, 도문 4일	1,089,000~
실속	연길, 백두산(서파+북파), 용정, 4일	1,059,000~
품격	연길, 백두산(서파+북파), 용정, 4일	1,159,000~
실속	연길, 백두산(서파+북파), 용정, 도문 5일	1,089,000~
품격	연길, 백두산(서파+북파), 용정, 도문 5일	1,199,000~

※불포함사항 : 유류세(W93,000), 중국단체비자(W33,000), 가이드/기사료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2004-1호)  
\*관광초대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해외여행 1억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관광 및 유류세, 유류할증료 포함  
\*2억 영장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험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 등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결제방법 :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비밀번호 필요)  
\*항공료 : 항공 및 선박, 철도버스 / 전차 \*승차권 : 항공 및 항공료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

여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